

# 기본 배달비에 각종 할증까지...소비자·상인들 '시름'

기본배달비 3천~5천원 '천차만별' 날씨·주말·고층아파트 따라 할증도 음식·배달비 인상 초래 '부담 가중' 공정위 "가격 설정에 개입 어려워"

대형 배달중개플랫폼이 외식업체에 부과하는 높은 중개수수료와 그에 따른 '이중가격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배달대행업체들이 기본 배달비에 각종 '할증 요금', '수수료', '관리비' 등을 더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면서 소비자와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배달앱의 중개수수료와 배달대행업체의 과도한 배달료 책정은 자영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는 또다시 음식값 인상을 불러일으켜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6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따르면 배달대행사가 부과하는 기본 배달비와 할증 요금은 지역 및 업체마다 천차만별이다. 수도권부터 지방까지 지역에 따라 기본 배달비는

3500원에서 5000원까지 다양했고 업체에 따라 '거리 할증', '주말 할증', '기온 할증', '아파트 할증' 등 할증 요금 역시 다양하게 부과하고 있었다.

이에 상인들은 '현재 부가세 별도 기본 배달비 4000원인데, 배달 기사가 없어 기본요금을 1000원 더 올린다는 공지가 내려왔다', '일부 지역에서는 독과점화된 배달대행사가 갑질을 하거나 배달비 담합을 하고 있는데 마땅한 규제가 없다',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붙는데, 코앞으로 배달 가도 4000원', '관리비 10만원은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다' 등의 게시글을 작성하며 기본 배달비 인상 및 배달료 할증에 대한 고충을 호소했다.

이런 가운데 광주지역에서도 '거리', '지역', '시간', '공휴일' 등에 따라 배달 요금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실제 소비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대형 배달앱을 살펴본 결과, 광주 동구의 한 디지털 가게는 거리 100m 당 100원의 추가 요금을 받았고 광주 서구의 한 배달 전문 고

깃집은 '동네' 별로 최소 900원에서 최대 3000원의 추가 요금을 부과했다. 자정부터는 야간 할증이 붙어 500원이 추가되고, 공휴일 역시 5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이외에도 기상 상황, 주문자의 자택 위치 등에 따라 추가 할증이 붙기도 한다.

배달앱 자체 '배달비 설정'으로 부과하기 힘든 할증 요금을 배달 메뉴에 넣어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식당도 찾아볼 수 있었다.

광주 동구의 한 가게는 '배달료 추가' 메뉴를 따로 만들어 소비자에게 '아파트 할증' 요금을 부과했다. 해당 가게는 '배달업체에서 할증을 받는다. 선택하지 않으면 주문이 취소된다. 죄송하다'는 문구를 넣어 소비자에게 양해를 구했다. 배달 완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부 '고층 아파트'나 '오토바이 단지 내 출입 금지 아파트'의 경우 배달 기사들이 배달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배달업체에서 할증을 붙이기 때문이다.

이에 과도한 요금 책정은 배달대행사의 '갑질'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 서구에서 배달 전문 식당을 운영하는 상인 A씨는 "배달대행사가 '배달중개플랫폼이 자체배달을 운영하는 탓에 대행업체 풀이 떨어지고 있다'며 기본 배달비를 인상하겠다고 말한 적도 있었다"며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해도 대부분의 업체가 기본 배달료를 비슷하게 책정하고 있어 선택지가 없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음식값 인상과 할증 요금 부과 등은 외식업체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문자의 자택 위치 등에 따라 배달료가 달라지므로 할증 요금을 소비자에게 일부 부과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면서도 "배달비가 지나치게 높으면 주문 건수가 하락하는 데다가 소비자가 배달비를 전부 지불하게 할 수는 없어 업주로서 배달료를 함께 부담하고 있다. 고객 유입률을 높이기 위해 음식값을 올리고 배달비를 낮추거나 무료 배달을 시행하는 식당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비·회비·수수료 등의 명목으

로 배달 혹은 건당 일정 금액을 더 지불하게 하는 대형사도 있다. 배달 중개수수료만 아니라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배달제반 비용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것 같다.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등을 제외하면 배달 판매 시 이윤이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과도한 배달비가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황에서 관련 규제는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전에 고지된 배달비를 지불했는데도 현장에서 추가 배달비를 요구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소비자에게 배달비를 고지했다면 배달비가 아무리 높아도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지역 내 배달비 담합 등 사업자들 사이의 담합 의혹이 있다면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조사를 진행한다"며 "하지만 배달비 할증과 같은 사업체만의 독자적 가격 설정에 개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광주신세계, '필립플레인' 팝업 운영** 광주신세계는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필립플레인'의 의류와 골프웨어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팝업 매장을 본관 1층에 오픈했다고 6일 밝혔다. 필립플레인은 팝업 매장 오픈을 기념해 최대 50% 할인행사를 연다. 화려한 장식과 특유의 크리스탈 해골 무늬로 유명한 필립플레인은 의류를 중심으로 스니커즈와 시계 등 다양한 품목을 선보이는 럭셔리 브랜드다.

광주신세계 제공

## 광주상의 "GGM 노조,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준수해야"

광주상공회의소가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조의 쟁의조정 신청은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해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상의는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2019년 GGM 출범 당시 노사민정 각 주체는 차량생산 누적 35만대 달성시까지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전제로 근무환경 및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상생협의회를 통해 상호 성실히 협의하도록 합의했다"며 "하지만, 지난 1월 GGM에 노사상생발전협정서 합의를 깨고 노조가 만들어졌고, 7월 상부단체 가입에 이어 최근 교섭결렬 선언과 함께 쟁의조정 신청으로 파업의 수순을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섭방식에 대한 노사 입장이 상이해 교섭을 한 차례도 하지 못한 상황인데도 노조는 무리하게 쟁의조정 신청을 했다"며 "이에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노조의 쟁의조정 신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5항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며, 노조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쟁의조정 신청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 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지만 GGM의 사례는 다르다"면서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탄생됐기에 광주시민과 광주시의 대내외적인 신뢰를 지키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다면 노조 관련자들은 지금이라도 상생협정서 취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이를 지키기 위해 '물러섬'의 미덕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권범 기자

| 제 1140회 로또       |                  |           |
|------------------|------------------|-----------|
| 당첨번호             | 2등 보너스 번호        |           |
| 7 10 22 29 31 38 | 15               |           |
| 등위               | 당첨방법             | 당첨금       |
| 1등               | 6개 숫자 일치         | 22억7982만원 |
| 2등               | 5개 숫자+ 보너스 숫자 일치 | 5493만원    |
| 3등               | 5개 숫자 일치         | 136만원     |
| 4등               | 4개 숫자 일치         | 5만원       |
| 5등               | 3개 숫자 일치         | 5000원     |

## 광주은행·iM뱅크, '달빛금융' 시동 건다

광주·대구지역 대표 향토은행 지역중기·소상공인 지원 앞장

광주와 대구를 대표하는 향토 은행인 광주은행과 iM뱅크가 양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 지원 협력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광주은행은 지난 2일 대구신용보증재단 본점에서 광주신용보증재단, iM뱅크, 대구신용보증재단과 '초광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달빛동맹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광주와 대구의 교류사업인 '달빛동맹'을 초광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 분야로 확장한 것이다.

영호남 지역의 대표은행과 보증재단이 협력해 최초로 체결한 보증협약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협약에 따라 광주은행은 광주신보에, iM뱅크는 대구신보에 보증재원 10억원을 각각 특별출연한다.

대출 대상은 영호남 교류 행사 참석 이력 있는 기업과 영호남 간 거처쳐 보유 기업, 관광·운수업종 영위기업 등 영호남 상생기업과 달빛철도 관련업종 기업이다. 대출은 업체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하며



광주은행은 지난 2일 대구신용보증재단 본점에서 광주신용보증재단, iM뱅크, 대구신용보증재단과 '초광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달빛동맹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은행 제공

기간은 최대 7년이다.

지역 관광 사업과 연관된 기업은 보증심사에서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앞서 광주은행은 2015년 iM뱅크와 교류 협약 이후 영호남을 잇는 달빛동맹 봉사활동을 통해 민간 차원에서 지역 화합에 앞장서 왔다.

이번 협약은 영호남 상생의 금융 지원 확대를 통해 양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경기 침체 장기화 속에서 이번 특례 보증이 지역 기업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각 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 지역경제 회복과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은행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광주·전남신용보증재단에 총 49억원을 특별출연해 약 884억원의 특례 보증대출을 공급했다.

최권범 기자

## 기아, 타이거즈 정규리그 우승 기념 프로모션

31일까지 경품 이벤트 진행

기아는 프로야구(KBO) 구단 '기아 타이거즈'의 2024 시즌 정규리그 우승을 기념하여 이달 31일까지 고객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기아는 이번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기아 스토어 방문 이벤트'를 운영해 고객에게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전국의 기아 지점, 대리점, 드라이빙센터를 방문해 해당 거점에 비치된 QR코드를 통해 이벤트 페

이지에서 응모하면 된다.

이벤트 경품은 △더뉴 EV6(1명) △더기아 EV3 기아 플렉스 1개월 이용권(2명) △기아 타이거즈 24 어센틱 홈 유니폼(50명) △기아 타이거즈 24 어센틱 벨크로 모자(100명) △기아 타이거즈 레시 인형(200명)으로 추첨을 통해 제공한다.

또한 기아는 해당 이벤트 참여 고객 전원에게 CU 모바일금액권을 증정하고 참여 고객 중 총 3000명을 선정해 계약금 지원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아는 자사 전기차에 대한 고객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기아 EV 바로알기 이벤트'도 시행한다.

고객이 기아닷컴 내 해당 이벤트 상세 페이지에서 △전기차 안전 관리/보장 △구매 혜택 △충전솔루션/멤버십 등 기아 전기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구매 상담 정보를 등록하면 전기차 계약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기아는 전기차 구매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기존 EV3의 전용 특별 할부 프로그램 '이-밸류(E-Value)'를 승용 전기차로 확대 운영한다. 단, 니로 플러스는 제외된다.

박소영 기자